

“81년 전 은혜로 맞은 광복, 이제 복음적 평화통일의 길로”

한교총, 광복 기념 연합예배 드려… ‘선언문’도 발표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이 16일 저녁, 서울 명성교회(담임 김하나 목사)에서 ‘대한민국 광복 81주년 기념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는 교단 총회장과 총무·사무총장을 비롯해 정치 지도자, 북한 억류 선교사 가족, 교단 관계자 및 교인 등 1만여 명이 참석했다.

1부 예배는 상임회장 김동기 목사(예장 백석 총회장)가 사회를 맡았으며, 공동대표회장 정정인 목사(예장대신 총회장)의 기념사, 김하나 목사(명성교회 담임)의 환영사, 상임회장 최인수 목사(기침 총회장)의 대표기도와 명성교회 연합찬양대의 찬양, 대표회장 김정석 목사(기침 감동회장)의 설교와 이기용 목사(기침 총회장)의 결단기도, 이상규 목사(예장개혁 총회장)의 헌금기도 및 광림교회 갈릴리중앙단의 특송으로 진행됐다.

2부 기념식에서는 정훈 목사(예장통합 총회장)와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조

배숙 의원(국민의힘)이 축사했다. 이어 공동회장 권오삼 목사(예장보수 총회장), 김명희 목사(예장보수개혁 총회장), 김국경 목사(예장통합동선목 총회장), 가성현 목사(예장통합동신 총회장), 박광철 목사(예장예정 총회장), 박만진 목사(예장개혁총로 총회장), 우선화 목사(예장파어선 총회장)의 특별기도가 있었다.

이후 한교총과 명성교회가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숙·김국기·최준길 선교사 가족에게 격려후원금을 전달했으며, 한교총 총무 박용규 목사(예장통합 총무)와 김일엽 목사(기침 총무)의 선언문 발표, 안상운 목사(예장호헌 총회장)의 선창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두가 만세삼창 후 김삼환 목사(명성교회 원로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특히 1부 예배에서 김정석 대표회장은 설교를 통해 참된 자유의 본질과 한국교회의 사명을 선포했다. 그는 오늘날 한국



한교총 대표회장 김정석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한교총

교회가 물질과 욕망을 좇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임한다고 권면했으며, 광복 81주년을 맞아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이웃을 돌보는 사람의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공동대표회장 정정인 목사는 기념사를 통해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의 갈등



예배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교총

과 분열을 치유하는 화해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복음적 평화통일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후 예배에 참가한 1만여 성도가 다 함께 애국가 제창으로 2부 기념식을 진행했다.

이광재 의원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실을 짚으며 한국교회의 영적 역할을 당부했다. 그는 “우리 대한민국은 마종일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 있지만,

온 세상을 부패하게 하는 ‘누룩’과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배숙 의원은 “현재 정치적 이념대립이 극심하고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감 고조,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는 법과 청년들이 교회를 외면하는 아픔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이 땅의 회복을 구하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주신 거룩한 소명을 다시 붙들자”고 축사를 전했다.

한교총은 광복 81주년 기념 한국교회 기념예배를 드리며,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숙·김국기·최준길 선교사의 가족에게 대표회장 김정석 목사와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가 격려후원금을 전달하며, 한국교회가 선교사님들의 조속한 송환을 기도했다.

한편, 한교총은 선언문 발표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와 세계 평화, 인류 공동의 번영임을, △대립과 분열을 넘어, “오는 세대”에게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물려줄 것을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룰 것을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했다.

선언문 발표 후, 안상운 목사(예장호헌 총회장)의 선창에 따라 예배에 참석한 1만여 성도 모두가 만세삼창을 외쳤다. 이날 예배는 김삼환 목사(명성교회 원로)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김진영 기자

“광복·건국 주신 은혜 기억하고 그 자유를 북한과 땅끝까지”

한교연, 16일 광복 81주년·건국 78주년 기념 연합예배 드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천환 목사, 이하 한교연)이 16일 인천광역시 예일교회(담임 남기창 목사)에서 광복 81주년·건국 78주년 기념 연합예배를 드렸다.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연합예배로 진행됐다. 최귀수 목사(한교연 사무총장)가 사회를 본 기념식에선 한교연 대표회장인 천환 목사(대회장)가 대회사를, 이선 목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환영사를 각각 전했다.

천환 대표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의 8.15 연합예배가 단순한 기념을 넘어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자유와 진리를 지켜나갈 것을 새롭게 결단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선 목사는 환영사에서 “기독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써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박찬대 인천광역시장이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박 시장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인권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에 평화와 화합의 빛을 밝히는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격려사는 전병금 목사(기침 증경총회장), 김철봉 목사(예장 고신 증경총회장), 정일웅 목사(총신대 전 총장, 한교연 전문위원), 조일래 목사(기침 증경총회장, 한교연 중경대표회장), 김재곤 장로(예장 합신 전 부총회장, 한장총 수석부회장)가 차례로 전했다.

먼저 전병금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로 광복을 주셨다. 이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했다.

이어 김철봉 목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자유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한다. 그리고 북한 동포들에게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주어질 때 진정한 광복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일웅 목사는 “한국교회가 건국의 역사와 대한민국 정체성을 다음 세대에 바로 전하는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일래 목사는 “우리가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완전한 광복인 통일을 이루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재곤 장로는 “81년 전 광복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이었다. 선진들이 지켜낸 이 위대한 유산을 후손들에게 온전히



한교연 광복 81주년·건국 78주년 기념 연합예배 주요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물려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소일권 목사(한교연 공동회장)가 참석자들이 모두 기립한 가운데 ‘광복 81주년·건국 78주년 한국교회연합 비전 선언문’을 낭독했다. 한교연은 이 선언문에서 △이웃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 △사랑과 화해, 화평을 심는 사랑 실천 △사회적 책임 감당 △자유민주적 질서와 법치수호 △차별금지법 등 악법 반대 △다음 세대에 바른 신앙 전수 등을 선언했다.

특히 “자유와 인권을 속박당한 북녘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때에 복음 안에서 통일될 것을 굳게 믿으며 ‘두 국가론’을 배격하고 통일의 날을 준비할 것”이라며 “연합을 통해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시

대를 선도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남기창 목사(예일교회 담임)의 인도로 연합예배를 드렸다. 장시환 목사(한교연 상임회장)의 기도과 정광식 목사(한교연 서기의 성경봉독, 예일교회 찬양대의 찬양 후 김은호 목사(오로교회 원로)가 ‘오직 나의 영으로’(스가랴 4:6, 느헤미야 1:3-11)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유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의 번영을 이루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며 “이제 남은 우리의 역사적 과업은 평화적



한교연 대표회장 천환 목사가 대회를 전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복음통일이다. 그런데 이는 오직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교회의 사명은 죄악으로 인해 어두워진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밝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했다.

그는 “복음통일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그리고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기도하고 헌신해야 한다. 그는 먼저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했고 헌신을 결단했다. 이처럼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기도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조국이 처한 위기 앞에서 화개의 기도를 드리고 헌신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은호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이후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특별 순서도 마련됐다. 서정환 목사(한교연 공동회장)가 ‘광복과 건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각성을 위해’, 최철호 목사(한교연 공동회장)가 ‘남북의 평화·복음통일을 위해’, 김길수 목사(한교연 부회장)가 ‘한국교회와 다음세대 신앙 전수를 위해’, 서영조 목사(한교연 총무협의회장)가 ‘땅끝까지 복음 전파와 지구촌의 전쟁 종식을 위해’ 기도했다.

이어 천환 대표회장의 인사와 한교연 상임회장 김바울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만세삼창, 참석자들의 ‘파송의 노래’ 제창, 정병근 목사(예장 고신 인천노회장)의 파송의 기도, 김요셉 목사(한교연 초대 대표회장)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김진영 기자

액상 향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소재 전문기업 트윈위즈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구단지 1길 16, 4층 ☎ 055-286-9004

도료 / 라텍스



가전/가구 필름



기능성 페인트



라텍스 장갑



도어락/손잡이



차량용 필름/디스플레이



생활용 도료/코팅액

※ 제품의 색상, 외관 및 특성 변화 없이 향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소재